



동지 재료 구하기 '안간힘' 번식기를 맞은 직박구리 한마리가 14일 서귀포시 대정읍 첫 일오름에서 동지를 찾는 재료로 사용할 끈을 끊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강희만기자

국내외서 해녀유산 전시·답사 잇따라

벨기에·스웨덴서 특별전 이탈리아 작가 회화전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주벨기에유럽연합(EU) 한국 문화원과 주스웨덴대사관에서 '제주해녀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주벨기에유럽연합 한국문화원에서는 지난 2일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 '제주해녀, 여성공동체,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주제의 해녀 전시회를 개최한다. 해녀복과 테왁망사리 등 해녀도구들과 홍보 영상, 해녀 관련 책자, 해녀를 소재로 한 문화상품 등을

전시해 제주해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주스웨덴대사관에서는 오는 17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스웨덴 수교 60주년을 기념한 '제주해녀문화전'을 진행한다. 아울러 제주도해녀박물관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해녀박물관 3층 전망대에서 이탈리아 화가 파올라 폴리칼디 서 회화전 '푸른 정원(A Blue Garden)'을 전시한다. 또 해녀박물관은 오는 25일 해녀유산 답사 프로그램 '해녀를 따라 걷다'를 운영한다. 이소진기자

대규모 사업 행정사무조사 제도개선 방침

개발방향·총량관리 등 6개 정책분야 점검
6월 27일 이어 7월 24~25일 증인 심문 계획
7월까지 조사 완료... 8월부터 보고서 작성

신화역사공원을 포함해 22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는 관계자 처벌보다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고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오는 6월 27일 제9차 회의를 열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한 5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증인으로는 문대림 JDC 이사장을 채택할 계획이지만 지난해 10월 행정사무감사 때 전직 도지사와 이사장 등이 불출석했던 것처럼 심사될지는

미지수다. 이상봉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 성과를 내기 위해 그동안 8차례 특위 회의 및 현장 방문과 매일 아침 실무 회의를 통해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 중"이라며 "그동안 특위 차원의 논의 결과 외부전문가를 위촉해 전문성을 보완하고, 우선적으로 JDC 5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 채택·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어 7월 15~19일 JDC 개발사업장을 제외한 17개 대규모 개발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같은 달 24~25일에는 제11차 회의를 열어 17개 사업장 관계자에 대한 증

인 심문을 펼칠 예정이다. 증인 심문을 끝으로 특위는 7월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8월부터 12월 2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특위는 ▷개발방향 및 각종 인프라 총량관리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 ▷주민지원 및 지역발전사업 ▷행·재정적 지원 및 관리체계 ▷중앙정부 이양사무 활용 ▷행정의 전문성·책임성 강화라는 6개 정책분야에 대한 점검을 기본 방향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특위는 보고서 발표 시점에 맞춰 대상자에 대한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지만 처벌(수사 의뢰)보다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JDC가 추진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변경 승인 때마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과정이 누

락된 것과 관련해 제주도로 하여금 이번주 중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화역사공원 등 건설 과정에서 숙박시설 대규모 변경이 이뤄졌지만 제주도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도 줄곧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특위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적 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위촉 및 외부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외부전문가에는 상·하수도 분야 이병철 박사, 대규모 개발사업 전반 분야 백승주 박사,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법) 관련 전반 분야 전재경 박사가 위촉됐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제주,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개발

해수부, 14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발표
제주 등 권역별 거점개발 해양관광 명소 조성

정부가 제주를 비롯한 권역별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중점 개발, 해양관광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해수부 장관은 14일 대한민국 관광 혁신 전략에 포함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을 적극·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제3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관계 부처가 함께 마련한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이 발표됐다.

정부는 전국 권역별로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개발해 우리나라에도 호주의 골드코스트, 멕시코의 칸쿤과 같은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마리나 거점인 전라북도 군산, 수중레저 거점인 강원도 고성과 제주, 해양치유 거점인 전라남도 완도 등 권역별로 우수한 해양관광자원을 갖춘 지역을 선정해 해양레저 체험 및 창업지원 등이 종합된 복합시설을 갖춘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해양레저관광 거점, 어촌 뉴딜300 사업지, 해양치유시설 등 주요 관광 거점을 연결하는 전국일주

바닷길인 '케이오션루트(K-Ocean Route)'를 구축해 이를 따라 주요 관광자원이 연결되는 여행코스를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중국발 관광객이 감소한 크루즈 산업의 경우 외국 크루즈 선박의 국내 기항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포트세일즈 활동의 확대와 함께 국내 주요 항만에서 일본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등 동남아시아까지 크루즈 관광이 가능하도록 항로의 다양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미니벚나무 자생지 발견... 5면 / 청년&실버세대... 7면

알림

한라일보에서 당신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세요

유투 판매부수 제주도내 1위, 신뢰도 1위 신문 환경 중심, 사람 중심, 칭찬하는 신문 뉴미디어 기업으로 재도약하고 있는 한라일보가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제주의 가치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꿈,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모집분야

- ▶ 수습기자 0명
- ▶ 경력기자 0명
- ▶ 사진기자(신입/경력) 0명
- ▶ 경력기획 인사·총무(신입) 0명
- ▶ 광고영업(신입) 0명

제출서류 : 1. 한라일보 소정양식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최종학력증명서
3. 자격·면허 사본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서류접수 : stkim@hallailbo.co.kr (이메일 접수만 받습니다)

접수마감 : 2019년 5월 21일

문의 : 한라일보 경영기획실 064)750-2531

* 재학생 지원 불가(대학교·전문대학 졸업예 정자 또는 마지막 학기 있는 자는 참여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합격은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창간 30 since 1989 주년

프로페셔널 리더의 자존심! 선명회계법인이 지킵니다.
회계 및 세무 자문, 경영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중견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선명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의 전통적인 업무영역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세무자문, 기업진단은 물론 주요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특화된 업무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sunmyung AG Accounting 선명회계법인

선명법무법인 | 선명회계법인 | 선명베스트먼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남로 6길 30(오라일동) 2층
Tel.(064)900-2301~5, Fax.(064)900-2306

공인회계사/세무사 **양우석**
공인회계사/세무사 **고정민**
공인회계사/세무사 **양태영**

세무, 회계, 경영관리, 자금 등의 해결! 선명회계법인의 전문가 그룹이 함께합니다.

- 조세불복 업무
-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신용사업에 대한 종합 컨설팅
- 기업경영과 컨설팅